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350,000 가구 이상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한
청정 에너지 투자 발표**

***NYSERDA 및 뉴욕 공공사업부는 에너지 효율성 서비스를 받는 가구의 수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공동 지원***

***주정부와 공공사업부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위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청정
난방 및 냉방 솔루션을 테스트 및 개발하여 더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주정부는 또한 대출 손실 보전 파일럿 및 뉴욕 그린뱅크 저렴한 다가구 대출을 통해
취약한 채무자를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솔루션 채택을 돕겠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과 주정부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 부분이 국가를 선도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low-to-moderate income, LMI) 가구, 저렴한 다가구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청정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협력 파트너십과 투자를 통해 주 전역에 걸쳐 350,000개 이상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 등 다수의 가구에 더 깨끗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와 더 저렴한 에너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공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접수된 본 프레임워크는 단열재, 공기 밀봉, 전기 부하 감소 및 냉난방 환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봉사 활동, 교육 및 지역 사회 기반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에너지 효율성 서비스 대상인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 다세대 건물의 수가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동안, 모든 뉴욕 주민들이 청정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가 이러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획기적인 민관 파트너십은 합리적인 가격의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직접

제공하고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최신 발표는 뉴욕을 선도하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을 뒷받침하며, LMI 가구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에너지 경제성을 개선하고 이들이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LCPA의 목표가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LMI 가구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불평등한 피해를 받으며, 이들 중 다수의 연간 에너지 부담액은 가계 소득의 20 퍼센트를 초과합니다. 공공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프로그램 직접 지원금 2억 5,000만 달러를 비롯하여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은 혁신적인 자원 제공 및 투자는 소외된 뉴욕 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에너지 비용을 통제하고 청정 에너지 솔루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출된 프레임 워크](#)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자금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2020년 자금 투자 및 2021년 시작되는 신규 및 개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NYSERDA와 뉴욕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 기업 간의 포괄적인 전략의 핵심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유틸리티 기업은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 콘 에디슨(Con Edison), 내셔널 퓨얼 가스(National Fuel Gas),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NYSEG/RG&E, 오렌지 앤 록랜드(Orange & Rockland) 등입니다.

주 전역에 걸쳐 시행되는 해당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2025년까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LMI 시장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확대를 추진합니다.

- LMI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에너지 부담을 줄이는 데 3억 달러 이상.
- 저렴한 다세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5억 달러 이상.
-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수준의 참여 및 역량 구축을 위해 4,500만 달러.
- 정부 기관 수준의 장애물 연구 분석, 파일럿 및 데모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통한 LMI 주택 및 건물을 위한 청정 난방 및 냉방 솔루션 개발에 3,000만 달러. 이번 투자는 최근 승인받은 뉴욕주 청정 난방 추진 계획(New York State Clean Heat Implementation Plan) 등 전기화를 추진하는 뉴욕의 선도적인 노력을 발전 시킨 것입니다. 뉴욕주 청정 난방 추진 계획은 다양한 히트 펌프 기술 등 전기화 솔루션 구획에 약 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규 이니셔티브는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청정 에너지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NYSERDA는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을 통해 다양한 인력 개발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및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계약업체

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인력 개발 및 교육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우선 순위 인구 및 인력 역량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장 교육 인센티브, 현장 강의 과정, 인턴십, 무역 및 노동 조합과의 파트너십, LMI 청정 에너지 커뮤니티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 지역 현지 인력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발표된 투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간 총 400 킬로와트시 및 60억 비티유가 넘는 수준으로 LMI 주민 및 저렴한 다세대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 프로그램 참가자의 에너지 요금 절감액 연간 4억 달러 이상
-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인한 뉴욕 주민들의 보건 개선
- 에너지 효율성 서비스 대상 가구가 연간 약 30,000 가구에서 70,000 가구 이상으로 증가.

뉴욕에서 320만 가구 또는 40 퍼센트의 주민이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가구로 인정받으며, 이들의 소득은 해당 지역의 중위 소득의 80 퍼센트 이하입니다. 건물은 뉴욕주의 연료 연소 및 전기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은 LMI 거주자와 건물 소유주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지역사회, 소외된 지역사회에 청정 에너지 투자 수혜를 35~40 퍼센트 받도록 하겠다는 CLCPA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NYSERDA는 또한 그린 잡스 - 그린 뉴욕(Green Jobs - Green New York)을 통해 1,0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여, [대출 손실 보전 프로그램\(Loan Loss Reserve Program\)](#)을 지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친환경 일자리 지원 및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에 대출을 시행합니다.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주거용 다가구 건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 기구가 사용하는 건물에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자금을 재출해주는 지역사회 기반 금융기관의 위험을 완화하여 취약한 채무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정 에너지 금융을 촉진 및 확대하는 한편, 신용점수가 낮은 소비자 또는 가구 수입이 낮은 소비자에 대한 대출 조건으로서 주택 대출 포트폴리오의 최소 35 퍼센트를 요구함으로써 제품 자금 조달의 가용성을 확대하고 조건을 개선합니다. 모든 다세대 건물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소 35 퍼센트 조건은 저렴한 다세대 건물에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뉴욕 그린뱅크\(NY Green Bank\)](#)는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주택 기관, 저렴한 주택 개발자 및 운영자 및 기타 단체와 협력하여, 이번 가을 뉴욕의 저렴한 다세대 주택 시장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솔루션 확대를 위해 최소 1억 5,000만의 투자 시행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행합니다. 자금 지원은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뉴욕주 다세대 저렴한 주택 시장의 창출 및 보전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뉴욕 그린뱅크는 전통적인 대출 기관 및 금융 기관에 저렴한 친환경 주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의 직접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HCR은 연방 또는 주정부 임대 지원을 받는 다세대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후성 보존 플러스 프로그램(Weatherization Preservation Plus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이래로, 내후성 프로그램(Weatherization Program) 기금은 5억 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뉴욕주에 있는 약 78,400 가구 이상의 주거지를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HCR은 또한 새로운 그린 본드(Green Bond)에서 약 1억 달러의 국제 인증을 확보한 미국 최초의 주로서 환경과 기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개발을 선도했습니다. HCR의 주택 금융청(Housing Finance Agency)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린 본드(Climate Bond) 발행자로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세대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NYSERDA의 사장 및 최고경영자 대행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가 어떤 뉴욕 주민도 소득과 상관없이, 더욱 편리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오늘의 발표는 특히 중요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뉴욕을 탄소 중립 경제로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전환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CR은 저렴한 다세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뉴욕 주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어젠다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NYSERDA 및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 기업의 우리 동료들을 지원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주 전역의 주택을 더욱 저렴하게 만드는 또 한가지 방법입니다."

청정 에너지 신용 연합(Clean Energy Credit Union) **Blake Jones** 자원봉사자 위원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구성된 신용 연합은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주택 개선 대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신용 연합은 NYSERDA의 대출 손실 보전 프로그램에 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 및 소외된 대출자에게 초점을 맞춘 건설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NYSERDA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받는 이율을 낮출 수 있고, 따라서 에너지 비용 및 유틸리티 비용을 줄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클루시브 프로스퍼리티 캐피탈(Inclusive Prosperity Capital)의 **Kerry E. O'Neill**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실 보전을 통해 지역 채권자의 친환경 대출 제품을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축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며, 저렴한 대출을 통해 지역 계약업체들은 효율성 및 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인클루시브(Inclusiv)의 Cathie Mahon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용 연합 및 기타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에서 청정 에너지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NYSERDA의 창의적인 접근법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의 대출 흡수 업무를 기후 정책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혁신적인 파트너와 협력하며 새로운 대출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탄소 중립 경제로 공정하게 전환하고자 주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 중 가장 최신의 조치입니다.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2025년까지 저소득 및 중간소득, 소외된 지역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혜택을 위해 배정된 2억 600만 달러와 더불어, 뉴욕주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 기업이 최대 7억 10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전기차 충전소 및 인프라를 설치하여 2025년 말까지 850,000 대의 전기차 운행이라는 뉴욕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발표의 일환으로 NYSERDA는 고밀도의 혼잡한 거리와 공공 고속도로 근처의 지역사회에서 배출량, 공평 문제 및 전기화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총 8,500만 달러의 공모전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달 NYSERDA는 소외된 뉴욕 주민들이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태양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6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는 뉴욕의 사회 에너지 공평 프레임워크(Social Energy Equity Framework)를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또한 뉴욕주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CLCPA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 정의 워킹 그룹(Climate Justice Working Group)의 구성원 9명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웹사이트 www.dps.ny.gov의 Commission Documents(위원회 문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번호 18-M-0084번을 [여기](#)에서 열람하십시오.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 빌즈 백 베티어(New York State Builds Back Better)로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법제화를 마친 뉴욕은 2040년까지 다른 주정부보다 빠르게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성과 전기 부문 제로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67개에 대한 3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24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1,800 메가와트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퍼센트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뉴욕의 기후 대책 위원회는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 퍼센트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최소 40퍼센트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